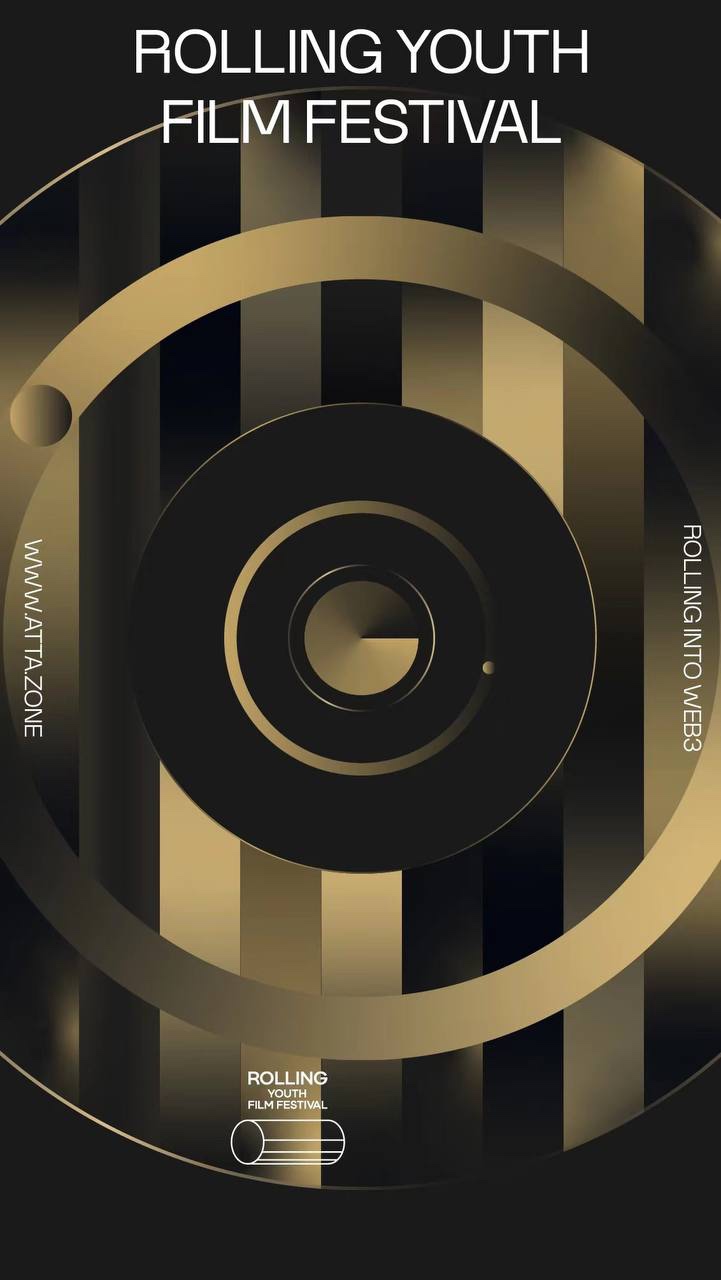
**PRESS KIT**



**영화제 개요**

명 칭 **롤링청년영화제**

**ROLLING YOUTH FILM FESTIVAL**

성 격 **온라인 단편 경쟁 영화제**

규 모 **250편**

개 최 일 정 **2022년 8월 8일(월) ~ 10월 18일(화)**

개막식 – 8월 8일(월)

특별 상영 - 8월 8일(월) ~ 10월 18일(화)

온라인 상영 - 8월 15일(월) ~ 10월 9일(일)

롤링 톡 - 8월 15일(월) ~ 10월 10일(월)

오프라인 상영 – 10월 11일(화)

시상식(ROLLING 단편영화의 밤) - 10월 11일(화)

온 라 인 플 랫 폼 **ATTA**

https://www.atta.zone

주 최 **ATTA**

주 관 **올드핸드 주식회사**

협 력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서울독립영화제(SIFF)**

**HiShorts! Film Festival(HiShorts!)**

**특징**

**전 세계로 나아가는 아시아 태평양 영화인들의 협력과 교류**

지난 5월 개최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계의 거장 박찬욱 감독이 중국 배우 탕웨이가 주연의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또한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 영화인 <브로커>로 한국 배우 송강호가 한국 영화 최초 남우주연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같이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화인들이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국제영화제에서 빛을 발했다. 한편, 중국의 청년 감독들인 진검영(陈剑莹), 황수립(黄树立), 이가하(李家和), 곽용비(郭容非)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바 있다. 이처럼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젊은 영화인들은 시야를 전 세계로 넓히고 있다. 영화의 표현 역시 더 이상 단일 국가에 대한 사고로 국한되지 않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년 영화인들은 동양의 고유한 전통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동서양 상관 없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화와 철학을 배경으로 창작하며 영화인들 간의 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혀 가고 있다. 젊은 영화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이다. 소모적인 ‘내부 경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화합하고 서로를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롤링청년영화제는 각국의 영화인들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될 예정이다.

**자율적 커뮤니티 플랫폼 ‘ATTA’를 통한 콘텐츠 공개**

아시아의 젊은 영화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우수한 작품들은 더 많은 영화 팬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영화인들은 더 큰 무대로 나아가야만 한다. WEB3영상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ATTA는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ACFM)과 손을 잡고 롤링청년영화제를 개최한다. ATTA는 참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탈 중앙화 자치 조직으로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소비하고 토론하며 창작하는 커뮤니티이다.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 커뮤니티를 통해서 차세대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 전문 기업과 개인 콘텐츠 생산자가 더욱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신인 감독과 새로운 콘텐츠가 더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힘을 쓰고 있다. ATTA의 비전은 WEB3을 통해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비즈니즈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ATTA는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의 공식 협력 파트너로 부산국제영화제(BIFF) 기간 중에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 핵심 섹션으로 참여한다. 아시아 지역의 영화 종사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마련하고 우수한 청년 영화감독들을 대거 발굴, 배양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아시아 청년 영화인들은 깊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온라인 상영, 상영 후 토론, 온라인 라이브 토크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간 공동제작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이치윤 프로듀서(올드핸드 대표이사)가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심사위원단에는 한국의 유명 감독인 강제규 감독이 롤링청년영화제 심사 위원장으로, 배우 김윤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중국의 유명 감독인 고군서 감독, 말레이시아 영화 대표 감독 진취매, 한국영화연구전문가 범소청, 서울독립영화제 김동현 집행위원장, 프로듀서 주휘용이 고문을 맡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즐기는 페스티벌**

이번 롤링청년영화제는 8월 8일(월)에 개막하여 10월 11일(화)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50편이 넘는 아시아 태평양 청년들의 단편영화를 상영한다. 각 부문은 HiShorts!에 출품된 우수한 해외 단편영화, 서울독립영화제에 출품된 우수한 한국 감독의 단편영화, SeaShorts 동남아 단편영화제에 출품된 우수한 아시아 감독의 단편영화로 구분된다. 이러한 부문을 통해 영화 팬들은 오늘날 아시아 청년 영화인들의 창작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특별상영 부문 또한 개설하여 강제규, 이재용, 허진호, 장율, 진취매와 필감 등 아시아 유명 감독의 단편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그밖에 50명 이상의 아시아 유명 영화인들을 초청하여 온라인 라이브 토크가 열린다. 라이브 영상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화 교류장을 더욱 넓게 만들어 청년 영화인들과 아시아 태평양 유명 국제 영화인들이 서로 교류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끝으로 롤링청년영화제는 사상 처음으로 관객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영화제에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단편영화의 오프라인 상영과 시상식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중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특히 당일에 ROLLING 단편영화의 밤을 개최, 한중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 영화인들의 협업과 발전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영부문**

**우수 아시아 청년 감독 단편영화 부문**

우수 아시아 청년 감독 단편영화 부문은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과 태국 등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많은 작품이 로카르노, 로테르담, 탐페레와 싱가포르 등에서 개최된 국제영화제에 상영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화 제작 환경에 대해 알고 아울러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별 작품의 다름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HiShorts! 우수 해외 청년 감독 단편영화 부문**

HiShorts! 우수 해외 청년 감독 단편영화 부문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교육받은 청년 감독들의 우수 작품을 대량 선정했다. 90년대에 출생하고 해외에서 돌아온 감독들은 중국의 신세대 감독 가운데 매우 특별한 집단이다. 그들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성장함에 따른 국제관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창작 과정에서 신분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차세대 중국 젊은이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으로 카메라에 담아내는 세상을 볼 수 있다.

**우수 한국 청년 감독 단편영화 부문**

우수 한국 청년 감독 단편영화 부문은 롤링청년영화제 이치윤 롤링청년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서울독립영화제 김동현 집행위원장이 선정한 최근 5년간의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 출품되었던 우수 단편영화를 상영한다. 최근 한국영화는 국제 무대에서 크게 빛을 발했다. 이창동, 봉준호, 박찬욱, 홍상수 등 거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청년 감독들의 창작과 성장은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한국 청년 감독들의 창작 세계를 알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동년배 감독의 영화 제작 수준을 알리고자 한다. 아시아 태평양 각 지역별 작품의 제작 환경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별상영**

많은 유명 감독들이 일찍이 단편영화나 데뷔작에서 모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 바 있다. 특별상영 부문에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 지역 감독들의 단편영화가 상영된다. 한국의 강제규, 이재용, 허진호, 장준환, 민규동, 조성희 감독 등을 포함해서 중국의 장율, 필감 감독 및 동남아 지역의 진취매 감독 등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Rolling Talk**

롤링 톡은 롤링청년영화제의 온라인 포럼이다. 8월 15일(월)부터 10월 10일(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매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화계 리더와 청년 감독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비슷한 소재와 배경으로 제작한 단편영화 감독들이 토크를 진행해 기대를 모은다.

청년 감독에는 위서균, 원세배, 진검영, 곽용비 등이 있다. 이번 영화제 조직위원 외에도 강제규, 장율, 서호봉, 랴오판, 장양 등 업계 거물들이 초청된다. 그리고 한국 영화계에서 주요 스텝으로 빛나는 부문별 감독들도 초청했다. <올드보이>, <괴물>의 액션 감독 양길영, <심용결>, <워리어스 레인보우:항전의 시작>의 액션 감독 심재원, <숨바꼭질>, <세븐 데이즈>, <베를린>의 미술 감독 전수아, <초록물고기>, <태극기 휘날리며> 음악감독 이동준, <용문비갑>, <적벽대전>, <집결호>의 이치윤 프로듀서 등이 참여한다.

롤링 톡의 주요 주제는 애니메이션 미학, 프로듀서 및 주요 부문별 감독들의 아시아 청년 감독에 대한 시각 그리고 중국 청년영화인들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 배경, 그들의 작품 속에 담긴 시각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심사 과정**

심사는 전문 심사와 대중 심사로 나뉜다. 전문 심사는 강제규 심사위원장을 대표로 총 10명의 전문 영화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250편 가운데 4편을 선정한다. 대중 심사는 영화제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 ATTA에 회원가입한 회원의 투표로 진행되며 최종 3편을 선정한다.

전문 심사위원단과 대중 관객이 최종적으로 선정한 총 7편의 영화에 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과 협조로 오프라인으로 상영된다. 더불어 수상자은 역시 부산국제영화제에 폐막식에 초청된다.

이번 롤링청년영화제는 오프라인에서 영화인들이 교류하는 동시에 온라인 영화제로서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회원가입 후 채점 투표를 하는 선정 이벤트와 중요한 게스트를 초청한 라이브 토크 등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거장 감독의 단편영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 감독의 수상작은 동양 미학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오늘날의 청년들의 사고와 상상력을 보여주며 조금 더 넓은 시야를 포용할 수 있다. 거장급 감독과 제작자 그리고 젊은 영화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고 서로를 거울로 삼을 것이다.